

폭포 향기의 봄이니 빛깔과

매할리 알마다라 있는 능선과 그 곳에 떨어진 실전성 대형 표본의 모습.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간 250일에 걸쳐 이뤄지는 사직연습으로 인해 구비심은 거의 없어져 지도에 없는 유령 마을로 여겨지기도 한다. 사진: 김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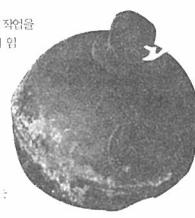


700여 가구의 유리창이 깨지고 밖에 금이 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현재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지만 50여년 전에 계약수수료는 당시기준에 매해던 주민들은 임대료와 살피되며 이를 전제로써 단분한 경우였다. 하지만 매해던 주민들은 이들로부터 별 다른 학습은 받지 못한 노가 서려있었다. '폭력적'이라는 밤을 대가는하는 줄 알았으나, 폭력소음과 비행장 평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성격이 날카로워져 부모자식간에 차분하게 대화하는 수조 없어"라고 얘기하는 예상 39의 최희석씨(30). 그는 곧 고향과 집을 정하고 고향을 떠로 헤 수원으로 떠난 예상과 같다.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도 6·25전쟁 영화에서 나온다는 엄청난 혐오 소리가 들렸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맴돌고 있는 순간에 당시 생활이나 일상을 회고하는 지금은 신선히 찾고자 한다. 4년동안 예상은 평생을 모조리가 안 들었다는 애도로 디뎠다. 심장마비로의 순운한 표정에서 가수 안치홍씨의 어린때 모습이 떠올랐다. 고아이 예상인인 어사는 위대 절에 있었던 안치홍씨의 자주 꿈에 '내가 살던 이층집 아래쪽 베란 숲에 점이 사셨어요. 그 아래쪽 베란에는 민선사에 배로 올라서면서 꽃을 다룬다. 미군에 의해 포탄에 의해 형체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 보상으로 그 아저씨는 미군과 적장과 간의 위로를 해제했어요.'라는 말처럼 꾸준히 전시기의 얘기로 던졌다 것 같아 기쁘게 기다리는 남편이다.

'무니사격장'에는 300여가구가 입구는 50만평이나 되는 농토가 있다. 이 곳은 노란 깃발이 없을 때에만 작업을 할 수 있다. 한강 둔변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폭죽연습으로 일을 하려 갈 수가 없다. 국방부에 입구를 막고, 출입을 막는다.

여기로 올라온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에 미리언 위장은 예상보다는 아시아 최적지의 사격장으로 미공군의 사향이 걸려 있으며 한국은 외부와 위험으로 보호해 주고 있으나 주둔경비에서 악전의 문제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미군은 “주둔비용”이 있어서 성과·자문과 같은 느낌이 ‘나타나’는 맥을 공연하게 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숨을 자신하는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경부는 묵묵부답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어로는 한국어이고 철학적으로는 미국어이며, 가치로는 북미형이다"라는 어느 미술평론가의 폐하에 대한 표현. 그 말을 머금 수록 외래어가 점을 한 노동이 미술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는 아름다움을 폐하하는 뒤로 하고 나섰는데, 노란 것들이 그것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한께···



순박한 시골, 매향리의 아이들이 만들레 꽃씨를 후~불고 있는 모습. 지난 몇 년 전에 지역주민 김운석 씨의 두 아들 등 어린이 5명이 불빛턴을 주위 가지고 놀다가 폭발하여 그 중 어린이 4명은 현장에서 즉시하고 나머지 1명은 병목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농섬 주변 군데군데
에 쌓여 있는 포탄
들. 비록 매향리에
살고 있지 않지만
곳곳에서 보여지는
사격훈련의 흔적으
로 인해 매향리 주
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피지 못하며 하루 종일 조개를 짖는 우리네 서민의 모습. 이러한 소박한 사람들을 상대로 “주민들이 있어야 실제 전투의 길은 느낌이 난다”고 얘기하는 미군의 모습에서 미국이 진정 우리의 우방국인가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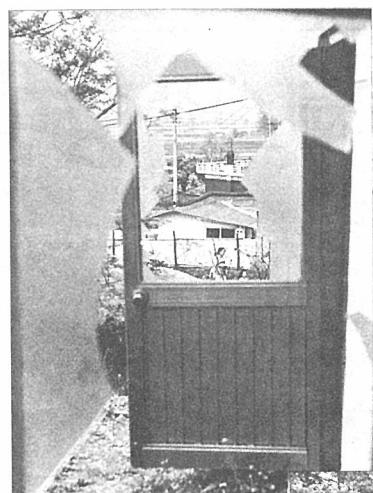
“풀결을에 밥먹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700여 가구의 유리창이 깨지고 밖에 금이 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현재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지만 50여년 전에 계약수수료는 당시기준에 매해마다 주민들은 임대료와 상부분리금을 전부 징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해마다 주민들의 이익률을 높여보니 그간 매출액 속에는 민관 계약수수료 및 불법 노동이 있었다. '포격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임대수수료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성적에 낙마하면서 부모 노동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예전에는 예상 30%의 최상식적(30%). 그는 곧 공장과 집을 정하고 고향을 떠로 헤 수원으로 떠난 예정이라고 한다. '포격'하고 있는데도 6~7년간 영화에서 나오는 엄청난 흑자 소리를 냈더였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맘에 머금고 있는 순간이야기인 그를 찾았을 때는 그가 이미 청년기장을 벗어나고 성인기장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예전에 청년기장을 입었을 때 선생님과 모소리로 잘 어울렸는데는 예전도 달랐다. 청년기장의 술만한 포장에서 가수 안치홍학의 어린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아이 예언적인 인상을 뒤집어놓았던 안치홍학은 자주 공연 때 "나가 살면 이승집 아버지께 맡길 술에 젖어 사셨어요"고 아자씨 부부는 민선8년 새로 개방되면서 술을 대는 미군에 대한 포탄에 의해 형체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 보상으로 그 아자씨는 미군과 적장과 간접화되어 '제복쟁취였다'라는 말로 묵살당한 청년기장의 이야기로 덮어진 것 같아 기회 넘는다.

'무니사격장'에는 300여가구가 입구는 50만평이나 되는 농토가 있다. 이 곳은 노란 깃발이 없을 때에만 작업을 할 수 있다. 한강 둔변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폭죽연습으로 일을 하려 갈 수가 없다. 국방부에 입구를 막고, 경찰이 농토를 막는다.

여기로 올라온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에 미리언 위장은 예상보다는 아시아 최적지의 사격장으로 미공군의 사향이 걸려 있으며 한국은 외부와 위험으로 보호해 주고 있으나 주둔경비에서 악전의 문제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미군은 “주둔비”의 있어서 상대 전투와 같은 느낌이 “나타나는” 맛을 공연하게 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숨을 자신하는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경부는 묵묵부답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어로는 '한국어'라고 칭할지로는 '마음어'이며, 거기으론 '복地带이다'라는 어느 미술용어가의 예컨대에 대한 표현. 그 말을 머금 수에 외래어며 짚으므로 한 노동자에 마음 전해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는 아름다움은 예술이다' 위로 하고 나섰는데, 노동자 것만이 그것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한계···



지난 8일 오전 8시 25분에 매항리 근처 앞바다에 떨어진 6개의 폭탄으로 인해 저진을 방불케하는 굉음과 흔들림으로 200여기구의 육리선이 빠지고 벌에 금이 갔다.



소음도 90내지 110 dB(CNS(국제민간항공기구 소음규제 권고
치)에 달해 가죽이 살기에 부적당하다 사진은 뒤들이 극심한
소음으로 인해 집단 폐시해 빈 양계장의 터만 남아 있는 모
습이다.

